

북한의 젊은 세대 내 이질성에 관한 연구

개인주의, 자본주의, 남한, 남한 중심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김택빈*

북한의 젊은 세대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그들을 동질적인 특성을 공유하는 하나의 세대 집단으로 가정하였다. 하지만 정말로 그들은 동질적일까? 이 연구는 그동안 북한의 젊은 세대 연구에서 간과되어 온 ‘세대 내 이질성’에 초점을 맞춘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실시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41명의 탈북민 서베이 자료를 사용하여, 본 연구는 북한의 젊은 세대 내에 이질성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만약 이질성이 존재한다면 무엇이 그것을 초래하는지 분석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제에 따라 북한의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더 큰 세대 내 이질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젊은 세대 내 이질성에는 성별, 나이, 교육 수준, 결혼 여부, 당원 여부, 장사 경험, 한류 문화 접촉 경험, 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향후 북한의 젊은 세대 연구에서 세대 내 이질성의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주제어: 북한, 북한의 젊은 세대, 세대 내 이질성, 탈북민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1. 서론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북한의 젊은 세대는 독특한 성장환경과 특성을 지닌 세대로 널리 인식되어 왔다.¹⁾ 연구자들은 북한의 젊은 세대를 일명 ‘장마당 세대’라 명명하며 그들이 가진 개인주의적 생활 태도, 자본주의 친화적 가치관, 남한 문화에 대한 친숙함 등에 관심을 가져왔다. 북한 내부에 존재하는 고도의 사회 통제와 사회화 압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중국을 통한 외부 문물의 유입,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그리고 시장화를 통해 기성세대와는 무언가 다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북한의 젊은 세대는 정말로 동질적인 세대 집단일까?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가정한 북한의 젊은 세대의 세대적 특성이 정말로 세대효과로 부를 만큼 동질적인지 탐구한다. 만일 북한의 젊은 세대 내에서도 높은 이질성이 관찰된다면, 어떠한 요인들이 그러한 세대 내 이질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울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41명의 탈북민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였다. 논문의 순서는 먼저 세대효과 및 세대 내 이질성과 관련한 기존 연구와 이론들을 검토하고, 북한 젊은 세대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1) 최지영 외,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서울: 통일연구원, 2021); 박영자·현인애·김화순,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서울: 통일연구원, 2015); 조정아 외,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서울: 통일연구원, 2013); 채경희, “북한의 ‘장마당세대’ 의식특성에 관한 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황규성, “북한 청년의 사회적 공간과 주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20권 1호(2016), 153~180쪽.

바탕으로 통계적 모델을 통해 북한 젊은 세대 내 이질성의 존재 여부를 분석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그동안 우리가 평면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북한의 젊은 세대의 특성과 그 내부의 이질성을 보다 정교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2. 기존 연구 및 이론적 검토

1) 세대효과와 세대 내 이질성의 문제

연구자들은 개인의 가치관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하여 연령효과(aging effects)와 기간효과(period effects)에 관심을 가져왔다. 연령효과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보수적인 성향, 즉 생물학적 노화에 따른 심리적인 변화, 사회적 역할에 따른 변화, 경험 축적에 따른 안정 추구적 경향성 등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일부 연구들은 이러한 연령효과가 단순한 선형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될수록 그 기울기가 급격해지는 패턴을 보인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²⁾ 기간효과는 연령효과나 세대효과와 달리 인구 집단 전체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에 관심을 갖는다. 사회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특정 세대나 연령층을 넘어서서 그 사건을 경험한 전체 인구 집단에게 동일한 충격과 태도 변화를 야기한다는 것이다.³⁾ 가령, 9.11테러는 미국의 전체 인구집단에게 커다란 충

2) Malcom J. Grant, Abraham S. Ross, Cathryn M. Button, T. Edward Hannah, and Rhoda Hoskins, "Attitudes and Stereotypes about Attitudes across Lifespan,"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29, No.8(2001), pp.749~762.

격을 가했고 그 결과 미국인들의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과 보수적 성향이 강화되는 현상이 대표적인 기간효과의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⁴⁾

한편, 연령효과와 기간효과 이외에도, 학자들은 세대효과에 주목해 왔다. 세대효과는 사람의 가치관과 인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이른바 ‘민감한 시기’에 겪은 역사적 경험이나 사회적 변화가 그 사람의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에 근거한다.⁵⁾ 동일한 시기에 출생한 사람들은 정치사회적 태도를 형성하는 민감한 시기에 유사한 역사적, 사회적 경험에 노출되고 그에 따라 동질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감한 시기 가설(impressionable years hypothesis)은 20세를 전후한 시기에 한 번 형성된 정치적 가치관이나 태도는 점차 나이가 들더라도 거의 변하지 않은 채로 일생에 걸쳐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에너지와 정보처리 능력이 감소되고,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

3) Willard L. Rodgers, “Estimable Functions of Age, Period, and Cohort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47, No.6(1982), pp.774~787.

4) 김기동·이재무, “세대 균열의 이면: 세대 내 이질성에 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54권 4호(2020), 138쪽.

5) Karl Mannheim, “The Problems of Generations,” in P. Kecskemeti(ed.),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London: Routledge & Kegan Pau, 1952), pp.276~322; Angus Campbell, Phillip E. Converse, Warren E. Miller, and Donald E. Stokes, *The American Voter*(New York: Wiley, 1960); Jon A. Krosnick and Duane F. Alwin, “Aging and Susceptibility to Attitude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7, No.3(1989), pp.416~425; David O. Sears, “Life Stage Effects on Attitudes Change, Especially among the Elderly,” in S. B. Kiesler, J. N. Morgan and V. K. Oppenheimer (ed.) *Aging: Social Change*(New York: Academic Press, 1981), pp.183~204.

는 일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줄어들며, 본인이 가진 신념체계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이다.⁶⁾

이 연구는 이러한 세 가지 주요한 효과들 중 세대효과에 주목한다. 세대효과에 대한 기존 학자들의 입장은 논쟁적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대효과는 기본적으로 성년 초기에 경험한 중요한 사회적 사건의 영향력이 전 생애 걸쳐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최근 일부 연구들은 1981년대 초 이후에 태어난 젊은 세대인 소위 'MZ세대'가 가진 독특한 세대적 특성이 기성세대들과 차별화된 정치적 태도와 의식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 연구들은 기후변화, 동성애, 이민자, 정치개혁 등 주요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포스트 밀레니얼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더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⁷⁾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세대효과가 세대 내의 다양한 이질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한다.⁸⁾ 이러한 비판적 연구들은 하나의

6) Jon A. Krosnick and Duane F. Alwin, "Aging and Susceptibility to Attitude Changes," p.416.

7) Ashley D. Ross and Stella M. Rouse, "Economic Uncertainty, Job Threat, and the Resiliency of the Millennial Generation's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Social Science Quarterly*, Vol.96, No.5(2015), pp.1363~1379; Ashley D. Ross and Stella M. Rouse, "(Young) Generations as Social Identities: The Role of Latino*Millennial/Generation Z in Shaping Attitudes About Climate Change," *Political Behavior*, Vol.44, No.3(2022), pp.1105~1124; Ashley D. Ross, Stella M. Rouse and William Mobley, "Polarization of Climate Change Beliefs: The Role of the Millennial Generation Identity," *Social Science Quarterly*, Vol.100, No.7(2019), pp.2625~2640; Robert Harmel and Yao-Yuan Yeh, "Impacts of Internet on Openness to Change in China: Millennials Versus Pre-Millennials," *Social Science Quarterly*, Vol.100, No.5 (2019), pp.1744~1754.

세대로 묶이는 정체성 내에서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들, 즉 이념적, 지역적, 계층적 요인들이 세대 내 이질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평생 개방성 가설(life-long openness hypothesis)은 민감한 시기 가설과 지속성 가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개개인의 가치관과 태도는 특정 시기에 국한되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시점에서 경험하게 되는 개개인의 여러 사회심리적 경험 및 역할 변화가 지속적으로 가치관과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⁹⁾ 최근 국내의 일부 경험적 연구들도 이를 상당 부분 뒷받침하는데, 세대효과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지거나 개개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등 세대 집단 내부에 또 다른 이질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¹⁰⁾

8) 허석재, “정치적 세대와 집합지역,” 『정신문화연구』, 제37권 1호((2014), 257~290쪽; 윤성이, 이민규,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세대 간 특성 비교: 주관적 이념 결정요인과 이념표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24권 3호(2014), 271~292쪽; 유성진·손병권·정한울·박경미, “집단정체성으로서의 세대와 그 정치적 효과,” 『한국정당학회보』, 제17권 2호(2018), 93~119쪽; 김기동·이재묵, “세대 균열의 이면: 세대 내 이질성에 대한 연구,” 135~165쪽.

9) Brim, Orville G. Jr. and Jerome Kagan. *Constancy and Change in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271~293쪽
David O. Sear, “Life Stage Effects on Attitudes Change, Especially among the Elderly,” in S. B. Kiesler, J. N. Morgan, and V. K. Oppenheimer(eds.), *Aging: Social Change* (New York: Academic Press, 1981), pp.183~204; Tom R. Tyler and Regina A. Schuller, “Aging and Attitude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1, No.5(1991), pp.689~697.

10) 허석재, “지역균열은 어떻게 균열되는가?: 역대 대선에서 나타난 지역·이념·세대의 상호작용,” 『현대정치연구』, 제12권 2호(2019), 5~37쪽; 윤성이·이민규,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세대 간 특성 비교: 주관적 이념 결정요인과 이념표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271~293쪽; 유성진·손병권·정한울·박경미, “집단정체성으로서의 세대와 그 정치적 효과,” 93~120쪽.

그렇다면 세대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을까? 세대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제기되는 첫 번째 문제점은 세대 구분의 모호성이다. 기존 연구들은 세대구분과 관련하여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년 혹은 10년 단위로 세대를 구분하는 방식과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나누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였다.¹¹⁾ 민감한 시기 가설이 제시하는 바에 따르면, 성년 초기에 같은 세대가 공유하는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적 변화가 특정 세대의 정치적 태도와 가치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단순히 시차에 의한 세대구분은 본래적 의미의 세대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세대를 나누게 될 경우, 어떠한 사회적 변화나 사건을 중심으로 세대를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 일정한 모호성이 존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즉, 연구자마다 어느 시점을 세대 구분의 기준으로 설정해야 할지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 두 번째 문제는 세대 내 이질성에 대한 고려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개인의 정치적 태도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대만이 아니다. 사회경제적 계층, 지역, 성별, 학력 집단 등 다양한 요소들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어떠한 이슈인지에 따라 각 요인들의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다. 즉, 세대 효과의 강도나 존재 여부가 개별 이슈에 따라, 혹은 다른 인구통계학

11)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하는 최근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정진민, “한국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와 세대: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1집 2호(2012), 1~21쪽; 노환희·송정민·강원택, “한국 선거에서의 세대 효과: 1997년부터 2012년까지의 대선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12권 1호(2013), 113~140쪽; 오세제, “386세대 세대효과와 특징 연구: 세대효과와 조건적 표출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25권 1호(2015), 133~164쪽.

적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각 국가별 특수성에 대한 고려이다. 세대효과가 한 세대가 공통적으로 노출된 사회적 환경이나 조건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효과는 각 사회별 맥락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의 젊은 세대와 남한의 MZ세대는 세대효과의 내용과 강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즉, 남한 사회의 MZ세대에게서는 뚜렷한 세대효과가 관찰될 수 있을지 몰라도, 북한의 젊은 세대들에게서는 세대효과라 부를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세대효과가 어떠한 이슈를 중심으로 발현될지에 대해서도 각 사회적 맥락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대효과와 세대 내 이질성의 문제들을 고려하여, 과연 북한 젊은 세대에게서는 세대효과라고 부를 만한 것이 존재하는지, 만일 세대 내 이질성이 존재한다면 어떤 이슈에 대해 무엇을 중심으로 이질성이 발현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북한의 세대 구분과 젊은 세대

기존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 사회의 세대를 구분해 왔다.¹²⁾ 특히 많은 기존 연구자들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북한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역사적 사건에 주목한다.¹³⁾ 즉, 이들은 고난의 행군

12) 북한 사회의 세대 구분과 달리, 남한 사회의 세대 구분은 연구자들마다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예컨대 오세제는 산업화, 386, 포스트 386의 세 가지 세대구분 방식을 채택하였고, 박영득과 이재묵은 전쟁 전, 전쟁 후, 386, X세대, 탈냉전, 밀레니엄 등으로 세대를 구분하였다.

13) 박영자·현인에·김화순,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조정아 외,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배급제를 경험한 세대와 성장기에 배급제 붕괴와 시장화를 경험한 세대 간의 차이를 구분하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세대 구분을 보다 세분화하여 배급세대, 고난의 행군세대, 시장화 세대로 나누기도 한다. 박영자 외의 연구에서는 배급제도가 시행되던 시기를 경험한 1968년 이전 출생자들을 ‘배급세대’, 성장기에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경험한 1969년부터 1982년까지 출생자들을 ‘고난의 행군 세대’, 그리고 성장기에 시장화 및 7.1조치를 경험한 1983년 이후 출생자들을 ‘시장화 세대’로 구분하였다.¹⁴⁾ 기존 연구들의 구체적인 세대 구분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을 추출해 본다면 대체로 ‘배급제도를 경험한 세대’와 ‘고난의 행군 및 시장화를 경험한 세대’를 각각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로 구분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젊은 세대는 어떠한 특성을 가진 세대 집단일까? 북한 젊은 세대는 소위 ‘장마당 세대’라 불리며 1990년대 이후 붕괴된 배급체제 속에서 태어났다. 국가 배급에 의존하지 않고 장마당을 통해 스스로의 생존을 책임지는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점에서 그들은 북한의 기성세대와 차별화된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이들은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 음악 등 남한의 대중문화를 경험한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그 이전 세대에 비해 남한에 대하여 더 높은 문화적 친숙도를 가지고 있다.¹⁵⁾ 북한에서는 단순히 연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최지영 외, 『북한 일상 생활 공동체의 변화』.

14) 박영자·현인에·김화순,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100쪽.

15)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 자료(2011~2020)에 따르면, MZ세대 북한이탈주민들 중 90.26%가 남한의 방송, 드라마, 영화, 음악 등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령의 폭을 기준으로 한 세대 구분보다는 주요한 역사적 사건과 사회주의 대중운동을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한다. 대체로 ‘혁명 1세대’는 김일성과 함께 항일빨치산 활동을 한 세대, ‘혁명 2세대’는 6.25전쟁과 전후복구 과정을 경험한 세대, ‘혁명 3세대’는 1970년대의 사회주의 부흥기와 3대 혁명소조운동을 주도한 세대, 그리고 ‘혁명 4세대(장마당 세대)’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라 불리는 1990년대 중후반에 태어났거나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로 분류한다. 혁명 4세대를 장마당 세대로 부르는 이유는 기근과 경제 위기로 인해 사회주의 배급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이 시기의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하기 위해 장마당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태어났거나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북한의 비공식 시장인 장마당을 보며 자랐고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활양식과 개인주의, 디지털 문화에 친화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오늘날 북한의 젊은 세대가 태어나고 자란 사회적 조건을 고려해 본다면, 이들의 세대적 특성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먼저 북한의 젊은 세대, 즉, 1980년대 이후에 출생하여 1990년대~2000년대에 성장기를 보낸 이들의 특성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개인주의’의 측면이다. 북한 사회는 전통적으로 집단주의적 가치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중시하며, 이러한 가치는 국가 이데올로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경제 붕괴와 대기근을 겪은 이후로, 사회 구조와 가치 체계가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젊은 세대의 가치와 행동은 이전 세대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인주의는 자기 결정권과 자유, 그리고 개인의 이익과 취향을 중시하는 가치체계를 의미한다. 북한의 젊은 세대는 배급제가 와해되고 사회 전망이 붕괴된 상황 속에서 개인적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개인적 생존과 이익에 더욱 민감한 가치관을 체득한 것으로 보인다. 소위 북한 장마당 세대는 경제난과 배급제의 붕괴를 경험했을 뿐 아니라, 공교육의 붕괴를 경험했다는 점에서도 기존 세대와 차별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¹⁶⁾ 그로 인해 그들은 북한의 기존 공교육 시스템에서 강조되는 당과 수령의 뜻 관철, 국가와 사회, 집단과 인민에 대한 헌신 등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충분히 내면화하지 않았다는 특성을 보인다. 실제로 박영자 외의 연구에서는 성장기에 고난의 행군을 경험한 세대가 개인주의 점수에서 다른 세대보다 평균적으로 높다는 점을 지적한다.¹⁷⁾ 즉, 고난의 행군을 경험한 세대는 사회의식의 차원에서 ‘당, 국가 및 최고지도자에 대한 태도’, ‘북한 당국의 공식적 가치지향인 집단주의에 대한 태도’에서 기성세대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시장이라는 비공식 경제가 삶의 주요한 터전이 되면서 새 세대의 가치관에서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공명주의와 출세주의적 태도가 두드러지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¹⁸⁾

북한의 젊은 세대들에게 광범위하게 관찰되는 또 하나 특징은 ‘자본주의 친화적 태도’이다. 달리 말하자면, 물질주의와 배금주의의 확산이라 볼 수 있다. 장마당 세대의 최대 관심 사항은 단연코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많은 탈북민들은 “고난의 행군을 겪고 화폐교환을 하면서 나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그다음에는 먹고사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경제활동에 많이 신경을 쓰는 거 같다”라는 공통적인 의견을 피력한다.¹⁹⁾ 시장화는 북한

16) 채경희, “북한 장마당세대의 의식 특성 비교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0권 1호(2019), 314쪽.

17) 박영자·현인에·김화순,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106쪽.

18) 최지영 외,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 116쪽.

의 젊은 세대가 자본주의 친화적 태도를 갖게 만든 주요한 원인이다. 북한의 시장화를 분석한 2016년 통일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이미 2016년 12월 기준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시장의 숫자만 북한 전역에 400여 개소가 넘고,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비공식 시장들이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최초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모이기 시작하면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북한의 시장은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오늘날엔 공식적인 시장과 비공식적인 시장(장마당)이 혼재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장과 밀접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장사를 통한 생계유지가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자본주의 친화적 태도를 갖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그들은 더 이상 북한 당국이 그들의 생존을 책임져 주지 않는 환경 속에서 성장했지만, 그와 동시에 여전히 작동하는 북한의 강력한 사회통제 시스템 속에서 이들은 본격적인 사회 변혁이나 정치 개혁보다는 주로 돈벌이에 치중하는 행태를 보인다. 요컨대, 그들은 비정치성과 개인주의를 특성으로 하며 물질주의, 배금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성세대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²⁰⁾

북한의 젊은 세대를 특징짓는 세 번째 세대적 특성은 '남한에 대한 우호적 태도'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디지털 매체의 보급과 한류 문화의 확산이 있다.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은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남한 영화와 드라마, 대중가요를 통해 남한을 새롭게 인식하고 간접적으로나마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DVD나 노트북, 태블릿 PC, 휴대

19) 위의 책, 115쪽.

20) 박영자·현인에·김화순,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143쪽.

폰 등의 저장매체를 사용하거나 남한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직접 전파를 수신해 텔레비전을 통해 남한 방송을 시청하는 형태로 한류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 남한 영상물 시청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 특히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의식 변화를 추동하는 과정은 꽤나 흥미롭다. 강동완은 영상물 접촉 경험이 반복되고 정보가 누적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남한 영상물 속의 내용을 서서히 각인하고 확신하게 된다고 주장한다.²¹⁾ 즉, 그 영상물 속 내용에 깊이 몰입하면서 등장인물의 상황에 공감하는 동시에 남한에 대한 거부감이 수그러들고 내용에 동화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의 단속과 사상학습교육이 주로 젊은 세대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현상은 특히 젊은 세대들이 한류 문화의 영향에 매우 민감한 세대라는 사실을 잘 설명해 준다.

3) 북한 젊은 세대 내 이질성의 존재 가능성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 연구들은 북한 젊은 세대들의 세대적 특성을 개인주의, 시장화, 남한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대다수의 기존 연구들이 북한 젊은 세대의 세대적 특성을 동질적, 평면적, 서술적으로 묘사한다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세대효과 개념에 근거하여 그들이 경험한 공통적인 사회적 사건이 그들을 동질성을 갖는 집단으로 만들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과연 그들은 하나의 세대로 명명할 만큼 이념적, 행태적 동질성을

21) 강동완,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 그 의미와 영향』(통일부 통일교육원, 2015), 58쪽.

가진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 흥미로운 부분은 이미 기존 연구들 중 상당수가 북한의 젊은 세대 내에 존재하는 이질성, 다시 말해 같은 세대 내에서도 복잡하고 중층적인 일종의 ‘혼종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경은 북한의 청년 세대를 ‘사이(in-between)세대’로 정의하고 이들이 양가적인 위치와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이라 설명한다.²²⁾ 즉, 이들은 기성세대와 연계되어 있는 의식과 경험세계를 구축하고 있으면서도 그 이면의 감정, 욕망, 의지 등의 영역에서는 기성세대와 구분되는 차이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승대 역시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다. 그는 동일한 젊은 세대에 속하더라도 “자신의 사회, 경제적 위치에 따라 이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고, 이를 ‘장마당’세대로 단색화하기 보다는 계층적, 계급적 차원과 의 교차와 연계를 통한 다층적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²³⁾ 북한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양가적인 태도 또는 혼종적인 정체성은 일부 경험적 자료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박영자 외의 연구에서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토하였다.²⁴⁾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고난의 행군 세대의 경우, 다른 세대들에 비해 개인주의와 가족주의에 대해 가장 높은 지지도 점수를 보이지만, 그와 동시에 기존의 사회적 가치인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해서도 가장 높은 지지도 점수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젊은 세대 안에서 개인주의와 국가주의라는 상충된 지향성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22) 김성경, “북한 청년의 세대적 “마음”과 문화적 실천: 북한 “사이(in-between)세대”의 혼종적 정체성,” 『통일연구』, 제19권 1호(2015), 22쪽.

23) 최지영 외,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 99~144쪽.

24) 박영자·현인에·김화순,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107쪽.

이해할 수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혼종성과 모순성에 주목한다. 과연 그들은 얼마나 동질적인 세대 집단인지, 그리고 어떠한 요인들이 그들 내부의 이질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3. 연구 설계 및 분석

1) 데이터와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먼저 북한의 젊은 세대를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로, 기성세대는 1979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로 정의한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세대 구분의 시점은 다소 논쟁적이지만, 큰 틀에서 성장기에 배급제를 경험한 세대와 그 이후 배급제 및 사회 시스템의 붕괴 속에서 성장한 세대를 나누게 된다면, 1980년에 태어난 이들은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1994~1998년)에 10대 중후반의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이다. 따라서 1980년부터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미공급 세대’ 또는 ‘배급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²⁵⁾ 데

25) 세대 구분의 자의성 또는 합의의 부재는 모든 세대 연구에 있어서 제기되는 공통적 문제이다. ‘왜 반드시 이러한 세대 구분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쉽사리 해소되기는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는 기준을 가지고 1980년 이후 태어난 세대를 ‘젊은 세대’로 규정하고자 한다. 또한, 더 세부적인 세대 구분(60년대생,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 간의 차이 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적이므로, 이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리라 판단된다.

이터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실시하였던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바로 전년도에 탈북한 북한 주민 1,241명에 대한 누적 설문조사 자료이다. 특히, 이 자료는 설문조사 바로 직전에 북한을 떠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의식조사 자료라는 점에서 남한이나 중국 거주 경험과 같은 간접 요인들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물론, 모든 탈북민 서베이 자료가 그러하듯, 탈북민들로부터 얻은 설문조사 결과를 북한 주민 전체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대표성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00여 명 이상의 전년도 탈북민들 조사한 1,241명 규모의 서베이 자료는 현재로서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 자료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나마 북한 주민들의 의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설문조사 자료는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뿐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데이터가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은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 세대’를 충분히 포함한 자료라는 점이다. 전체 1,241명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 중 젊은 세대로 분류되는 1980년 이후 출생자의 비율은 52.94%(657명)이고 나머지 기성세대는 47.06%(584명)에 해당되므로 두 집단 사이의 비교를 통해 젊은 세대 내 이질성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에 대한 세부적인 연도별 기술통계는 <표 1>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정된 종속 변수는 젊은 세대의 세대적 특성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개인주의’, ‘자본주의’, ‘남한’, ‘남한 중심의 통일’에 대한 인식의 총 네 가지 변수이다. 이들 중 ‘개인주의’와 ‘자본주의’ 변수

〈표 1〉 설문조사 자료의 연도별 응답자 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조사 연도	기성세대		젊은 세대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2011	60	57.14	45	42.86	105	100
2012	72	56.69	55	43.31	127	100
2013	69	52.27	63	47.73	132	100
2014	83	55.7	66	44.3	149	100
2015	70	47.95	76	52.05	146	100
2016	57	41.3	81	58.7	138	100
2017	49	37.12	83	62.88	132	100
2018	29	33.33	58	66.67	87	100
2019	47	40.52	69	59.48	116	100
2020	48	44.04	61	55.96	109	100
총계	584	47.06	657	52.94	1241	100

는 각각 4점과 5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통계 분석모델로는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남한’과 ‘남한 중심의 통일’은 각각 이항 변수로 재코딩되었으므로 통계 분석 모델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²⁶⁾ 먼저, 첫 번째 종속변수는 개인주의에 대한 태도로써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일상생활에서 집단과 나(또는 가족) 중에서 무엇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 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4점 척도(1=집단이 훨씬 더 우선, 2=집단이 조금 더 우선, 3=나(또는 가족)이 조금 더 우선, 4=나(또는 가족)이 훨씬 더 우선)로 답하도록 구성되었다. 두 번째 종속변수는 자본주의에 대한

26) 남한에 대한 인식과 남한 중심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서로 차이가 있는 개념이다. 젊은 세대의 주요한 세대적 특징 중 하나는 남한에 대한 우호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남한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서 ‘남한 중심의 통일’에 대해서까지 우호적인 태도로 나타난다면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 판단하여 네 번째 종속변수로 추가하였다.

태도로써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사회주의경제(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시장경제, 개인소유경제) 중 어느 것을 더 지지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5점 척도(1=사회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 2=사회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 3=두 가지 모두를 비슷하게 지지, 4=자본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 5=자본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로 답하는 문항이었다. 세 번째 종속 변수는 남한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으로써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에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이었다. 이는 본래 다섯 가지 카테고리 (1=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 2=경계해야 할 대상, 3=선의의 경쟁 대상, 4=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 5=도와주어야 할 지원 대상)로 만들어져 있었으나, 분석을 위해 이를 더 미변수로 변환하였다. 즉, 남한에 대해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 혹은 '도와주어야 할 지원 대상'으로 긍정적 응답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재코딩하였다. 마지막 네 번째 종속변수는 남한 중심의 통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서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까?'라는 질문이었다. 이는 본래 네 가지 카테고리(1=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 2=통일 이후에도 북한과 남한의 두 체제가 각각 유지, 3=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절충하여 통일, 4=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로 구성되었으나, 분석을 위해 마찬가지로 더미변수로 재코딩하였다. 즉, 질문에 대해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을 선택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재코딩하였다.

다음으로, 북한의 젊은 세대 내 이질성을 탐색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독립변수들이 측정되었다. 다양한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 세대 내 이질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성별, 교육, 연령, 소득 계층, 사회적 계층, 혼인여부 등이 포함되었고, 그 외에도 북한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세대 내 이질성을 촉발시킬 수 있

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장사 경험, 외부 지역 방문 경험, 한류문화 접촉 경험, 지역이 아울러 측정되었다. 먼저, 성별 변수(0=남성, 1=여성)가 포함되었다. 성별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정치적 이슈들에 대한 관심도와 지식수준이 떨어지고, 이념적으로는 보다 진보적이라는 특성이 관찰된다.²⁷⁾ 특히 남한에서는 최근 페미니즘 운동과 젠더 갈등을 통해 성차가 더욱 부각되는바, 북한의 젊은 세대 안에서도 이러한 성별의 효과가 존재하는지 측정하였다. 교육 수준은 5점 척도(1=무학, 2=인민학교 졸업, 3=고등중학교 졸업, 4=전문학교 졸업, 5=대학교 이상 졸업)로 측정되었다. 교육은 전통적으로 정치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정치적 선호, 정치적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²⁸⁾ 북한 체제의 권위주의적 특성상, 교육은 개인들이 국가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제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측정하고자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경제 및 사회적 계층 역시 세대 내 이질성과 연관될 수 있다. 경제적 수준은 현재 사실상 공식 경제 시스템이 마비된 북한의 특성을 고려, 비공식 소득수준

27) Margaret Inglehart, "Political Interest in West European Women: An Historical and Empirical Comparative Analysi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14, No.3(1981), pp.299~326; Delli Carpini, Michael X. and Scott Keeter, *What Americans Know about Politics and Why It Matters*(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6); Jay K. Dow, "Gender Differences in Political Knowledge: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Based and Return-Based Differences," *Political Behavior*, Vol.31(2009), pp.117~136.

28) Seymour Martin Lipset, "Some Social Requisites of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Legitim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53, No.1(1959), pp.69~105; Kay Schlozman, Henry E. Brady and Sidney Verba(2018), *Unequal and Unrepresented: Political Inequality and the People's Voice in the New Gilded 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8).

을 0(월 0원)부터 7(월 백만 원 초과)까지 8점 척도로 포함하였다. 또한 사회적 계층은 노동당원 여부를 묻는 이항변수(0=비당원, 1=당원)로 설정하였다. 한국의 사례에서도 일부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계층은 투표 행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²⁹⁾ 계급 투표 현상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적이지만, 북한 내에서도 경제적, 사회적 계층이 주민들의 의식과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일종의 대체물(proxy)로써 비공식적 소득수준과 당원 여부가 독립변수로 포함된 것이다. 또한, 연령의 영향력이 연속형 변수로 측정되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태도에 대한 연령의 영향력은 세대효과와 무관하게 같은 세대 집단 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치적 태도가 특정한 방향으로 강화되는 일종의 ‘연령 효과’가 북한의 젊은 세대 내에서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령 변수를 포함시켰다. 특히 북한의 젊은 세대 안에서도 1980년대에 태어난 연령대와 1990년대 이후 태어난 연령대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연령 효과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외에도 혼인 여부(0=미혼, 1=기혼), 장사 경험(0=경험 없음, 1=경험 있음), 외부 지역 방문 경험(1=거의 가보지 못했다, 2=가끔 가봤다, 3=자주 가봤다), 한류문화 경험(1=전혀 접해보지 못했다, 2=한두 번 접해봤다, 3=자주 접해봤다)의 변수들이 고려되었다. 특히 장사 경험, 외부지역 방문 경험, 한류 문화 경험은 북한 사회의 폐쇄적 특성상 상당한 수준의 의식 변화와 세대 내 이질성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변수들로 판단되어 분석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지역

29) 강원택, “한국 선거에서의 ‘계급 배반 투표’와 사회 계층,” 『한국정당학회보』 제12권 3호(2013), 5~28쪽; 이현경·권혁용, “한국의 불평등과 정치선호의 계층화,” 『한국정치학회보』, 제50집 5호(2016), 89~108쪽.

〈표 2〉 변수별 기술통계

변수명		빈도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종속변수						
개인주의	집단 훨씬 우선	44 (6.71%)	3.58	0.90	1	4
	집단이 조금 더 우선	52 (7.93%)				
	나 또는 가족이 조금 더 우선	40 (6.10%)				
	나 또는 가족이 훨씬 더 우선	520 (79.27)				
자본주의	사회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	63 (9.62%)	3.77	1.27	1	5
	사회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	46 (7.02%)				
	두 가지를 비슷하게 지지	105 (16.03%)				
	자본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	204 (31.15%)				
	자본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	237 (36.18%)				
남한에 대한 인식	적대, 경계, 경쟁 대상	247 (37.88%)	0.62	0.49	0	1
	협력, 지원 대상	405 (62.12%)				
남한중심의 통일에 대한 인식	북한의 현 체제, 각 체제 유지, 남북 절충하여 통일	164 (45.43%)	0.55	0.50	0	1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	197 (54.57%)				
독립변수						
성별	남자	295 (44.90%)	0.55	0.50	0	1
	여자	362 (55.10%)				
연령		656	27.63	5.04	18	41
교육수준	무학	6 (0.91%)	3.29	0.71	1	5
	인민학교	16 (2.44%)				
	고등중학교	478 (47.87%)				
	전문학교	91 (13.87%)				
	대학교 이상	65 (9.91%)				

결혼 여부	미혼	447 (68.98%)	0.31	0.46	0	1
	기혼	201 (31.02%)				
당월 여부	비당월	587 (90.45%)	0.10	0.29	0	1
	당월	62 (9.55%)				
비공식소득수준(월)	0원	168 (26.71%)	3.99	2.63	0	7
	천 원 이하	9 (1.43%)				
	5천 원 이하	3 (0.48%)				
	만 원 이하	4 (0.64%)				
	10만 원 이하	51 (8.11%)				
	50만 원 이하	191 (30.37%)				
	100만 원 이하	95 (15.10%)				
100만 원 초과	108 (17.17%)					
장사 경험	경험 없음	241 (36.85%)	0.63	0.48	0	1
	경험 있음	413 (63.15%)				
외부 지역 방문 경험	거의 가 보지 못함	211 (32.16%)	1.93	0.76	1	3
	가끔 가 봄	279 (42.53%)				
	자주 가 봄	166 (25.30%)				
한류문화 경험	전혀 접해 보지 못함	63 (9.60%)	2.44	0.66	1	3
	한두 번 접해 봄	243 (37.04%)				
	자주 접해 봄	350 (53.35%)				
평양 지역	평양 아님	644 (98.32%)	0.02	0.13	0	1
	평양	11 (1.68%)				
기타 지역	기타 지역 아님	585 (89.31%)	0.11	0.31	0	1
	기타 지역	70 (10.69%)				
국경 지역	국경 지역 아님	81 (12.37%)	0.88	0.33	0	1
	국경 지역	574 (87.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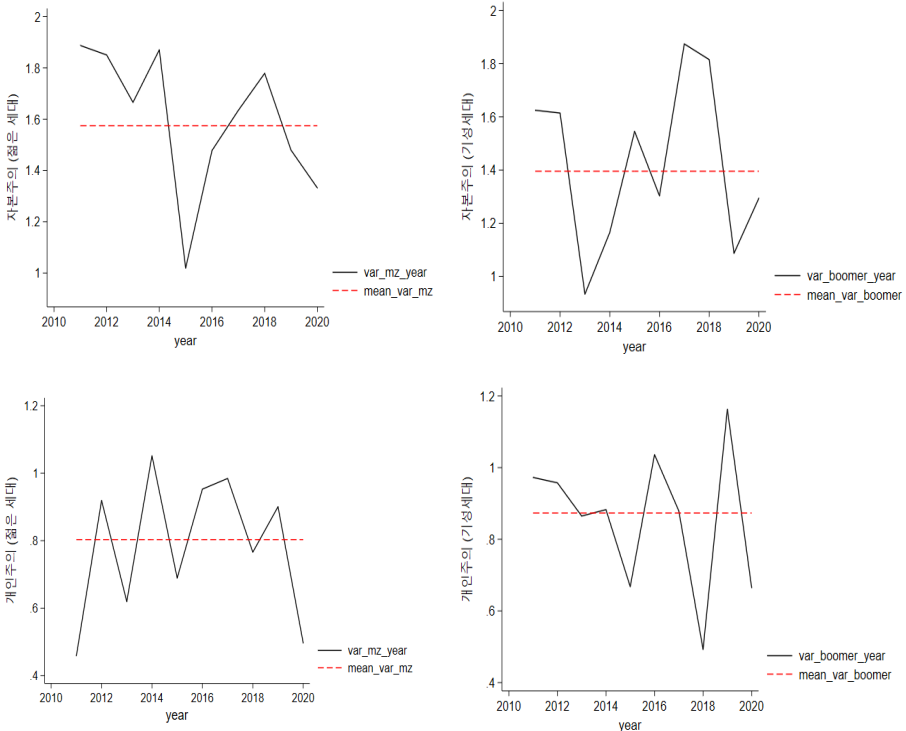
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지역별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탈북민들의 지역적 편중성을 고려하여 지역은 크게 세 가지 더미변수(평양, 국경지역, 기타 지역)로 재코딩하였다. 국경지역에는 평안북도,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가 포함되었고, 기타 지역에는 남포, 개성, 평안남도, 함경남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의 지역이 포함되었다. 분석에서는 기타 지역을 기준 집단으로 설정하여 평양과 국경지역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측정하였다. 모든 모델에는 연도 고정효과가 반영되었다. 이상의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2>에 제시되었다.

2) 젊은 세대 내 이질성 분석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하기에 앞서, 본 연구는 과연 젊은 세대 내의 이질성이 과연 기성세대 내의 이질성보다 더 큰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종속변수인 개인주의와 자본주의 인식에 대한 북한의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집단 내 분산을 비교하였다.³⁰⁾ <그림 1>은 두 가지 종속변수인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의 세대별 분산을 조사연도별로 제시한 것이다. 이 그래프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비교를 통해 젊은 세대 내 이념적 이질성의 크기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다. 각 세대별 그래프에서 점선은 전체 분산 값의 평균이고, 검정 실선은 각각의 연도별 분산 값을 의미한다. 먼저, 개인주의의 측면에서는 기성세대의 평균적인 분산 값(0.867)이 젊은 세대(0.806)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난다. 반면, 자본주의에 대한

30) ‘남한에 대한 인식’과 ‘남한 중심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이항변수로 코딩되었기 때문에 그룹별 분산에 대한 동등성 비교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1〉 북한의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세대 내 분산 비교



인식에서는 젊은 세대 내의 평균적인 분산 값(1.619)이 기성세대 내에서의 평균적인 분산 값(1.4)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산의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집단 간 분산의 동등성을 검정하는 Levene's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인주의에 대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분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자본주의에 대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분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즉, 자본주의에 관한 한, 기성세대에 비해 젊은 세대 내 태도의 편차가 더 크고 이

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었다. 다만 이러한 세대 내 이질성의 크기 차이는 관심 주제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의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에서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일정한 인식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젊은 세대 안에서 더 큰 이념적 이질성이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젊은 세대 내 이질성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표 3〉은 젊은 세대 내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보여준다. 각각의 종속변수에 대한 좌측 모델은 사회경제적 변수들만을 고려한 기본 모델을 의미하고 우측은 장사경험, 외부방문 경험, 한류문화 경험, 그리고 지역 변수들까지 고려한 모델을 의미한다. 먼저 성별 변수는 젊은 세대 내 개인주의에 대한 태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젊은 세대에서는 여성일수록 개인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데, 여성일수록 장사 경험이나 외부 방문 경험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성별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유지되었다($p < 0.1$). 하지만 이러한 성별의 효과가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연령 효과는 자본주의에 대한 모델에서는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본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점은 사회 경험이 쌓이고 다양한 돈벌이 활동에 나서게 되는 나이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결혼 여부 변수는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을 할수록 자본주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것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

〈표 3〉 젊은 세대 내 개인주의와 자본주의 인식에 대한 결정요인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개인주의		자본주의	
성별	0.445**	0.408+	-0.236	-0.109
	(0.124)	(0.215)	(0.235)	(0.211)
연령	-0.004	-0.006	0.040**	0.041**
	(0.030)	(0.031)	(0.013)	(0.012)
교육 수준	0.069	0.100	0.319**	0.211+
	(0.083)	(0.114)	(0.119)	(0.113)
결혼 여부	0.472	0.388	-0.237+	-0.347**
	(0.292)	(0.267)	(0.127)	(0.133)
당원 여부	-0.586*	-0.481*	-0.091	0.098
	(0.284)	(0.241)	(0.304)	(0.291)
비공식 소득	0.085+	0.040	0.054	0.012
	(0.048)	(0.056)	(0.034)	(0.030)
장사경험		0.384+		0.280**
		(0.232)		(0.107)
외부 방문 경험		-0.128		0.037
		(0.150)		(0.082)
한류문화 경험		0.305		0.713**
		(0.313)		(0.085)

지역(기타)				
평양		-1.017+		0.315
		(0.570)		(0.449)
국경지역		0.062		0.279
		(0.292)		(0.215)
연도 고정효과	✓	✓	✓	✓
N	612	608	612	608

주: 제시된 숫자는 회귀계수이고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긴 어렵지만, 결혼을 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늘어날수록 생계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스스로의 힘으로 견뎌내야 한다는 점이 자본주의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당원 여부 변수는 개인주의 인식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당원일수록 개인주의에 대한 더 부정적 태도를 갖는 것이다. 북한에서 당원은 조직생활의 충실성을 기초로 선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집단주의적 사고방식과 태도를 강하게 내면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젊은 세대 내에서도 당원 여부는 개인주의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장사경험 변수가 개인주의 모델과 자본주의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사를 경험한 젊은 세대일수록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는 것이다. 한류문화 경험 변수는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에만 양(+)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변수와 관련해서는 평양지역 변수가 기타 지역에 비해 개인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평양에는 출신성분이 더 우수하고 사상적으로 투철한 주민들이 주로 거주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인주의에 대한 반감은 이러한 주민들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특히 당원 여부 변수와 평양 변수가 유독 개인주의 모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북한의 젊은 세대 내에서도 좋은 사회적 토대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욱 집단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표4는 남한과 남한 중심의 통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보여준다. 먼저 성별은 남한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일수록 남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별의 효과는 남한 중심의 통일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 효과 역시 남한에 대한 인식에만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한에 대해 더 우호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다. 교육 수준은 남한 중심의 통일에 대한 인식에만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남한에 대한 인식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통일의 방식에 있어서는 남한 중심의 통일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다. 앞선 모델에서 교육 수준 변수가 자본주의 인식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과 문제점을 더 잘 인식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선호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결혼 변수는 남한에 대한 인식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결혼을 한 사람일수록 남한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 태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것의 정확한 이유는 다소 불분명하다. 당원 여부 변수는 남한에 대한 인식에

〈표 4〉 젊은 세대 내 남한과 남한 중심의 통일에 대한 결정 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남한에 대한 인식		남한 중심의 통일에 대한 인식	
성별	0.353**	0.531**	0.161	0.195
	(0.116)	(0.177)	(0.265)	(0.317)
연령	0.050**	0.063**	0.016	0.027
	(0.017)	(0.015)	(0.024)	(0.027)
교육 수준	0.293	0.282	0.331**	0.498**
	(0.217)	(0.221)	(0.079)	(0.103)
결혼 여부	-0.471*	-0.589*	-0.137	-0.411
	(0.220)	(0.235)	(0.318)	(0.391)
당원 여부	-0.726*	-0.650*	-0.592	-0.674
	(0.302)	(0.307)	(0.438)	(0.484)
비공식 소득	-0.011	-0.001	0.090	0.070
	(0.031)	(0.036)	(0.060)	(0.060)
장사경험		-0.377		0.047
		(0.266)		(0.193)
외부방문 경험		0.003		-0.145
		(0.178)		(0.116)
한류문화 경험		0.505**		0.521+
		(0.156)		(0.269)

지역(기타)				
평양		-1.091+		-2.142+
		(0.592)		(1.108)
국경지역		0.247		0.571
		(0.245)		(0.644)
연도 고정효과	✓	✓	✓	✓
N	609	606	349	347

주: 1) 제시된 숫자는 회귀계수이고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2) 응답자의 수가 각기 다른 이유는 각각의 문항별 미응답자 혹은 설문 질문이 일부 조사연도에서 누락 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남한 중심의 통일에 대한 인식'의 경우 2014년에 새롭게 추가된 설문조사 문항이다.

만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당원일수록 북한 사회에서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고 더 강도 높은 사상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비당원들에 비해 남한에 대해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다는 점은 일정 부분 납득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한류 문화 경험 변수는 남한에 대한 인식과 남한 중심의 통일에 대한 인식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 사회에 널리 퍼진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 등이 북한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 특히 남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에 미치는 효과가 이 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평양 지역 변수는 남한에 대한 인식과 남한 중심의 통일에 대한 인식 모두에서 음(-)의 영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평양에 사는 주민들은 대체로 다른 지역에 비해 사회적 토대가 우수한 경우가 많으므로 보다 체제 순

응적, 옹호적이며 반대로 남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젊은 세대 내에서도 이러한 지역적 차이, 더 구체적으로는 평양과 기타 지역 간의 차이가 남한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발견된다는 점은 흥미로운 지점이다.

4. 토론 및 결론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가지고 있던 북한의 젊은 세대 내 동질성에 대한 가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과연 이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동질적이지 않다면 어떠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세대 내 이질성이 나타나는지 밝히고자 했다. 세대효과와 개념은 기본적으로 같은 세대 집단에 속한 개인들이 사회화 과정에서 동일한 경험과 환경에 노출되고 결과적으로 유사한 인식적, 행태적 특성을 공유하게 된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세대 내 동질성의 가정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같은 젊은 세대 내에서도 사안에 따라, 그리고 성별, 나이, 교육 수준, 결혼 여부, 사회경제적 계층, 개인적 경험, 그리고 지역에 따라 상당한 인식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바로 전년도에 탈북한 1,241명의 탈북민 데이터를 통해 본 연구는 젊은 세대들의 개인주의, 자본주의, 남한 인식, 남한 중심 통일에 대한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세대 내 이질성’이 발견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특히, 사안에 따라서 젊은 세대 내의 이념적 이질성의 크기가 기성세대의 그것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주의에 대한 인식에서 북한의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 이질성의 크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는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더 큰 이념적 이질성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실시한 회귀 분석 결과는 이러한 젊은 세대 내의 이질성이 성별, 나이, 교육 수준, 결혼 여부, 사회경제적 계층, 장사 경험, 한류 경험, 그리고 지역 등에 의해 초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들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살펴보면, 먼저 북한의 젊은 세대에서는 여성일수록 개인주의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와 남한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 변수는 자본주의 인식과 남한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북한의 젊은 세대 내에서도 사안에 따라 일정한 연령효과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나이를 먹을수록 외부 세계의 소식이나 남한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누적된 정보의 양 또한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 수준은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과 남한 중심의 통일에 대한 인식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오늘날 북한 젊은 세대들에게 공교육이 더 이상 체제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고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의 우수성을 주입시키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오히려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주의 시스템의 비효율과 모순을 인식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으로의 이행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큰 것이다. 젊은 세대 내의 이러한 변화는 고난의 행군과 뒤이은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의 공교육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된 것에 일정부분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즉, 공교육이 붕괴된 환경 속에서 성장기를 보낸 젊은 세대에게는 북한 당국의 이데올로기적 세뇌교육

의 영향이 덜 작용하고, 또래집단이나 한류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외부 채널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젊은 세대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특성이다. 당원이나 평양 지역 변수로 대변되는 이들은 북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와 혜택을 누리는 집단이다. 이들의 경우,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개인주의와 남한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더 부정적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젊은 세대 내에서도 사회적 지위를 중심으로 한 일정한 이질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부분은 경제적 지위를 의미하는 비공식 소득 수준 변수의 영향력은 모든 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미미한 반면,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는 당원 변수 혹은 평양 지역변수는 개인주의와 남한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상당한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북한 젊은 세대 내에서 이질성이 무엇을 중심으로 발현되는지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흥미롭게 다가온다.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장사 경험과 한류 문화 접촉 경험의 효과이다. 장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해 더 긍정적이다. 장사 경험이 남한이나 남한중심의 통일에 대한 인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인식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 연구결과는 보여준다. 특히 한류 문화 경험의 영향력이 자본주의, 남한 인식, 남한 중심의 통일에 대한 인식에 대해 일관되게도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류 문화를 경험한 북한의 젊은 세대는 자본주의와 남한에 대해 긍정적일 뿐 아니라, 향후 남한 중심의 통일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 북한 당국이 유

레없이 강력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 한류 문화의 확산을 막으려는 노력이 실질적인 이유를 갖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한류문화의 확산과 접촉 경험의 증가가 청년층의 의식 변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젊은 세대 내에서는 평양과 기타 지역 간의 지역적 편차가 확인되었다. 사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평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체제 옹호적인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젊은 세대의 역할이 주목을 받아왔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북한의 새 세대 연구에 있어서 세대 내 이질성의 측면에 대한 충분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세대와 세대 사이에서의 차이뿐 아니라 세대 안에서의 차이도 결코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확인되며 이것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개인적 경험들을 통해 중첩적으로 발현되고 있다. 북한의 젊은 세대를 몇 가지 특성을 공유하는 동질적이고 평면적인 세대로 가정하는 것은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한 차이들을 간과하는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이 연구는 지적한다. 물론 이 연구의 결과가 북한 젊은 세대가 가진 세대적 동질성 또는 세대효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 연구는 기존의 북한 젊은 세대 연구들이 기본적으로 가정했던 세대적 동질성이 특정한 주제에 따라서는 그 패턴과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향후 북한의 젊은 세대 연구에서는 세대 내 이질성의 문제에 대해 더욱 신중하고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접수: 6월 30일 / 수정: 8월 2일 / 채택: 8월 9일

참고문헌

1. 국내 자료

1) 단행본

강동완,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 그 의미와 영향』(통일부 통일교육원, 2015).

박영자·현인에·김화순,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서울: 통일연구원, 2015).

조경아·조영주·조은희·최은영·홍민,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서울: 통일연구원, 2013).

최지영·박희진·윤보영·한승대·한재현,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서울: 통일연구원, 2021).

2) 논문

강원택, “한국 선거에서의 ‘계급 배반 투표’와 사회 계층,” 『한국정당학회보』, 제12권 3호(2013), 5~28쪽.

김기동·이재묵, “세대 균열의 이면: 세대 내 이질성에 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54권 4호(2020), 135~165쪽.

김성경, “북한 청년의 세대적 ‘마음’과 문화적 실천: 북한 ‘사이(in-between)세대’의 혼종적 정체성,” 『통일연구』, 제19권 1호(2015), 5~39쪽.

노환희·송정민·강원택, “한국 선거에서의 세대 효과: 1997년부터 2012년까지의 대선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12권 1호(2013), 113~140쪽.

오세제, “386세대 세대효과와 특징 연구: 세대효과와 조건적 표출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25권 1호(2015), 133~164쪽.

유성진·손병권·정한울·박경미, “집단정체성으로서의 세대와 그 정치적 효과,” 『한국정당학회보』, 제17권 2호(2018), 93~119쪽.

윤성이·이민규,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세대 간 특성 비교: 주관적 이념 결정요인과 이념표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24권 3호(2014), 271~292쪽.

- 이현경·권혁용, “한국의 불평등과 정치선호의 계층화,” 『한국정치학회보』, 제50집 5호 (2016), 89~108쪽.
- 정진태, “한국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와 세대: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1집 2호(2012), 1~21쪽.
- 채경희, “북한 장마당세대의 의식 특성 비교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0권 1호(2019), 313~322쪽.
- 허석재, “정치적 세대와 집합기억,” 『정신문화연구』, 제37권 1호(2014), 257~290쪽.
- _____, “지역균열은 어떻게 균열되는가?: 역대 대선에서 나타난 지역·이념·세대의 상호작용,” 『현대정치연구』, 제12권 2호(2019), 5~37쪽.
- 황규성, “북한 청년의 사회적 공간과 주변대중화,” 『북한연구학회보』, 제20권 1호 (2016), 153~180쪽.

2. 국외 자료

1) 단행본

- Brim, Orville G. Jr. and Jerome Kagan. *Constancy and Change in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 Campbell, Angus, Phillip E. Converse, Warren E. Miller and Donald E. Stokes, *The American Voter* (New York: Wiley, 1960).
- Carpini, Michael X. Delli and Scott Keeter, *What Americans Know about Politics and Why It Matter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6).
- Mannheim, Karl “The Problems of Generations,” in P. Kecskemeti(ed.),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 1952), pp.276~322.
- Schlozman, Kay Lehman, Henry E. Brady and Sidney Verba. 2018. *Unequal and Unrepresented: Political Inequality and the People’s Voice in the New Gilded 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8).
- Sear, David O., “Life Stage Effects on Attitudes Change, Especially among the Elderly,” in S. B. Kiesler, J. N. Morgan and V. K. Oppenheimer

(eds.), *Aging: Social Change* (New York: Academic Press, 1981), pp.183~204.

2) 논문

Dow, Jay K., "Gender Differences in Political Knowledge: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Based and Return-Based Differences," *Political Behavior*, Vol.31(2009), pp.117~136.

Grant, Malcom J., Abraham S. Ross, Cathryn M. Button, T. Edward Hannah, and Rhoda Hoskins, "Attitudes and Stereotypes about attitudes across lifespan,"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29, No.8(2001), pp. 749~762.

Harmel, Robert and Yao-Yuan Yeh, "Impacts of Internet on Openness to Change in China: Millennials Versus Pre-Millennials," *Social Science Quarterly*, Vol.100, No.5(2019), pp.1744~1754.

Inglehart, Margaret L., "Political Interest in West European Women: An Historical and Empirical Comparative Analysi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14, No.3(1981), pp.299~326

Krosnick, Jon A. and Duane F. Alwin, "Aging and Susceptibility to Attitude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7, No.3 (1989), pp.416~425.

Lipset, Seymour M., "Some Social Requisites of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Legitim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53, No.1(1959), pp.69~105.

Rodgers, Willard L., "Estimable Functions of Age, Period, and Cohort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47, No.6(1982), pp.774~787.

Ross, Ashley D. and Stella M. Rouse, "Economic Uncertainty, Job Threat, and the Resiliency of the Millennial Generation's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Social Science Quarterly*, Vol.96, No.5(2015), pp.1363~1379.

- _____. “(Young) Generations as Social Identities: The Role of Latino* Millennial/Generation Z in Shaping Attitudes About Climate Change,” *Political Behavior*, Vol.44, No.3(2022), pp.1105~1124.
- Ross, Ashley D., Stella M. Rouse and William Mobley, “Polarization of Climate Change Beliefs: The Role of the Millennial Generation Identity,” *Social Science Quarterly*, Vol.100, No.7(2019), pp.2625~2640.
- Tyler, Tom R. and Regina A. Schuller, “Aging and Attitude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1, No.5(1991), pp.689~697.

A Study of Heterogeneity within
the Younger Generation in North Korea:
Focusing on Perceptions of Individualism,
Capitalism, South Korea, and Recognition of
South Korea-centered reunification

Kim, Taek Bin (IPUS, Seoul National University)

Existing research on North Korea's younger generation assume that the youth are a single generation that share homogeneous characteristics. But are they really homogeneous? This study focuses on 'heterogeneity within generations', which has been overlooked in the studies on North Korea's younger generations. Using survey data — a dataset comprising responses from 1,241 North Korean defectors surveyed between 2011 and 2020 by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IPU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rigorous quantitative analyses were employed to probe the diversity within this demographic. The findings reveal a marked heterogeneity within the youth population compared to older generations, particularly in their perceptions of capitalism. Factors such as gender, age, education,

marital status, party membership, market business experience, exposure to Hallyu (the Korean Wave) culture, and regional variations were identified as contributing to this heterogeneity. The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recognizing and incorporating this diversity in scholarly investigations and policy development concerning North Korean

Keywords: North Korea, youth population in North Korea, intra-generational heterogeneity, North Korean defectors